

Workshop 3	발표일시(한국시간): 2021.12.27(월) 18:00~19:30
------------	---------------------------------------

워크숍 3 (정원 최대 30 명)

알아차림 인터아트: 운동, 건축 및 환경

“Awakening InterArts: Movement, Architecture & Environment”

다이엔 버틀러(Diane Butler) /번역 이주현

요약:

이 워크숍은 움직임, 건축물 및 주위 환경과 연결되어 각자에게 내재된 운동감각적 인지력과 창의성을 체험적으로 알아차리는 방법을 제공한다. 신체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첫번째 공간이다. 움직임은 살아 있음의 자연스러운 표시이며, 살아가는 환경과 인간의 삶의 표시이다. 움직임은 영아가 자궁으로부터 나오면서 시작되는 최초의 언어이다. 태어나 사물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움직임은 두번째 언어이며, 말을 통한 언어는 세번째 언어이다. 전통적으로 건축 설계를 할 때에 건축물의 규모는 사람의 신장과 손, 팔, 그리고 발자국의 폭과 같은 물리적인 측정을 통해서 한다. 각 세션(session)은 움직임의 범위, 시공간적 인지, 규모, 부피 및 방향과 관련하여, 일상 생활의 자세와 움직임에 근거한 유도된 연습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단독 무대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 개의 작은 돌과 두개의 나뭇가지, 천을 배치하고 움직여 우리의 자세나 움직임이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공간의 형태가 우리의 자세와 움직임 혹은 손동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트리오 혹은 소그룹을 통해 환경 예술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2021년 12월 25(토), 26(일), 27(월) 오후의 90분 세션에서는 동작 안내와 토론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오후 시간에는 모든 세션의 참가자가 마지막으로 환경예술운동 설치작업에 참가하여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시에 있는 WWF 기금(The World Wide Fund for Nature) 사무국에 기증할 21그루의 나무 묘목에 축복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 발표자 이력:

다이엔 버틀러(Diane Butler)는 35년 동안 아메리카, 유럽 및 아시아에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예술가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해온 춤 운동치료 예술가이며, 강사이자 문화 프로그램 감독이다. 2001년 이래 인도네시아 발리의 베들루와 테자쿨라에 거주해왔다. 그녀와 수프랍토 수리오다모(Suprpto Suryodarmo)는 예술, 종교 및 자연 공유를 통해 문화적 환경에서 다문화(interculture)를 지지하는 활동을 실천하는 담마네이처타임(Dharma Nature Time) 재단을 8개국의 회원들과 함께 공동설립하였다. 버틀러 박사는 2011년 세계문화유산 유엔시민교육(UNITAR World Heritage Training)의 동문이며 무용학 학사(The Juilliard School 줄리어드 대학교), 무용학 석사(Wesleyan University 웨슬리언 대학교) 학위를 받았다.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동 대학에서 문화학으로 박사학위(Universitas Udayana 우다야나 대학, 발리)를 취득하였다. 1997년부터 알아차림 인터아트(Awakening InterArts) 워크숍을 맡고 오고 있다.